

## 위험기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 레이더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 '2024년 국가 레이더 활용 위험기상 국제 연수회(워크숍)' 개최
- 세계 각국 전문가, 국가 레이더 활용 위험기상 조기 탐지 및 예측 기술 향상 논의
- 레이더 분야에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 도입 및 융합 활용 방안 모색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국가 레이더 통합 활용 방안 및 신기술을 교류하기 위하여, 11월 7일(목) 서울 구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2024년 국가 레이더 활용 위험기상 국제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는 미국, 대만, 일본 등 국외 레이더 전문가와 국내 학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하여, 위험기상 감시 및 예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실용화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혁신 기술의 도입·융합 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해양대기청 산하 폭풍연구소(NSSL, National Severe Storms Laboratory) 테아 샌드마일(Thea Sandmael)의 인공지능 기반 토네이도 예측 모형(알고리즘)에 관한 발표를 시작으로, 레이더 자료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 호우·폭설 등 위험기상 분석·예측, 수문 분야 활용 등 3개 분야 11편의 발표를 통하여 레이더를 통한 국내·외 위험기상 대응 노력을 공유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 위험기상 예측 기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위험기상 연구의 필수 도구인 국가 레이더 자원의 활용 가치를 한층 높이는 자리이자, 국내외 레이더 분야 기술 교류 증진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장동연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과 극단적인 위험기상 현상의 빈도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레이더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라며, “이번 행사가 기상레이더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레이더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4년 국가 레이더 활용 위험기상 국제 연수회(워크숍) 사진

담당 부서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명규 (02-2181-0861)
		담당자	연구관	이승우 (02-2181-0833)





| 2024년 국가 레이더 활용 위험기상 국제 연수회(워크숍) 단체 사진 |



| 환영사 (기상레이더센터장 김정희) |